

# “치절한 진흙탕 액션, 내 감당과 몸뚱아리의 진심”

액션도 대역 없이 해내야 진짜 배우  
극중 보이스피싱 피해자 마음 대변  
내가 좋아하는 연기 오래하고 싶어



배우 변요한(35)은 두 가지의 “절박함”을 말했다. 차분한 목소리로 생각을 펼쳐 내는 얼굴에서는 진지함이 묻어났다. 첫 번째 “절박함”은 더욱 절실해 보였다.

“오래 연기하고 싶으니까.”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에 ‘강한 소신으로 읽히기도 하지만 사고가 유연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묻자 그렇게 답했다. “나보다 내 연기를 더 좋아해 주면 좋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연기밖에 없다. 조금은 느릴 수 있지만 그것만을 위해 나아가고 싶다”면서.  
“한 작품 한 작품 쌓아 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거다. 저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그때 가서 오해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 ●절박함… “몸뚱아리의 부딪침”

두 번째 “절박함”을 그는 “몸뚱아리”로 표현했다. 15일 개봉하는 영화 ‘보이스’ (감독 김진, 감독 제작 수필름)에서 드러내는 “진흙탕의 맨몸으로 부딪치는, 몸을 사리지 않는”, 그래서 묻어내는 “절박함”이다. 액션연기를 말하는데, 그저 몸을 놀리고 상대와 연기의 힘을 맞추는, 짜여진 동작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대역을 안 쓰고 싶었다”는 생각도 거머쥐었다.

‘보이스’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전직 형사가 한 통의 보이스피싱 전화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족과 동료들을 위해 관련 범죄조직에 잠입한 뒤 치밀하게 조직화한 가해자에 맞서는 이야기이다. 변요한은 “내 몸뚱아리를 써서라도 조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마음을 대변

하고 싶었다”면서 “그렇지 못하다면 옆에서 나란히 걷고 싶었던 마음이었다”며 “절박함”을 구체화했다.

촬영이 끝날 때까지 액션스쿨에서 끊임없이 기초체력을 다지고 개인 훈련을 하면서 “피해자의 절박한 몸부림에 대해서만 연구했다”는 그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멋있지 않겠다”고 말했다. “멋있지 않기를 위해 ‘본업인 연기와 변요한의 삶 사이 접점을 찾으려 노력’하며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절박함… “내 감당의 최선”

그렇게 “절박”을 찾아온 지 10년. 2011년 단편영화 ‘토요근무’로 처음 연기를 시작한 뒤이다. “가끔은 발전했다 생각하고, 또 그리 밋고 싶다. 제자리걸음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그게 좋은 것 같기도 하다”며 미소 짓는다.

이유고 “보여지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지우고 싶은 순간도 많았다”는 그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듯하다”면서 “계속 무언가 신념을 찾으려 하고 있다”며 입술을 살며시 깨물었다. 찾고 있는 신념이란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그의 말대로 그 “무언가”일 텐데, 변요한은 “내 감당”이라는 전제를 앞세웠다.

능력과 실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강조했다. 그것이 작은 신념인지 아닌지 그가 말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찾아나서는 길 위일 수도 있지만, “내 감당”이라 내세운 전제 덕분에 그의 말은 진심으로 들려왔다. 앞서 말한 “몸뚱아리”를 다시 떠올린 직후이기도 했다. “나보다 더 나은 삶일 수도 있거나,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캐릭터일 수도 있지만, 아무런 편견 없이 내 몸뚱아리와 감정만으로 생명력을 주어 관객이 힘을 얻고 웃을 수 있다면”이라는 또 다른 전제에서 그는 “아직은 연기가 좋다. 연기가 너무 재미있다”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15일 개봉하는 영화 ‘보이스’의 주연 변요한은 “촬영하며 지혜를 준 선배배들을 뜨겁게 사랑했다”고 말했다. “언제 장가 가냐”는 친지 어른들의 잔소리를 들을 추측 연휴에는 “예쁜 조카를 보며 듣고 흘릴 거다”며 미소 지었다. 사진제공 | CJ ENM

## 오늘 ‘기적’ ‘보이스’ 개봉...추석연휴 포문

연휴 앞두고 예매율 20%대 경쟁  
‘모가디슈’는 350만이상 돌파 기대

다섯 편의 한국영화가 추석 연휴 흥행 경쟁에 돌입한다. 감염병 사태 속에서도 끊임없이 관객의 발길을 끌어들이려는 각 제작진의 선전에 힘입어 모처럼 극장가에 폭넓은 선택의 무대가 열리고 있다.

15일 ‘기적’과 ‘보이스’가 포문을 연다. 18일부터 시작되는 최소 5일간의 추석 연휴를 정면 겨냥한다. 각기 명절 연휴에 관객 시선에 들 만한 휴먼드라마와 범죄액션

장르를 내세우고 있다. ‘기적’은 경북 봉화의 한 마을에 간이역을 세우기 위해 애쓰는 천재 고교생을 중심으로, ‘보이스’는 보이스피싱 피해로 모든 것을 잃은 청년이 관련 범죄조직에 잠입해 벌이는 이야기를 각각 펼친다. 실시간 예매율로도 박스오피스를 이끌고 있다. 14일 오후 3시30분 현재 ‘기적’은 28%, ‘보이스’는 21%(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로 1·2위를 다투고 있다.

올해 여름시즌 성과를 거둔 ‘인질’, ‘모가디슈’, ‘싱크홀’도 추석 연휴 극장가에 간판을 내걸 전망이다. ‘인질’과 ‘모가디슈’는 슈퍼 히어로물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에 이어 2위 자리를 두고 간발의 차이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경쟁하며 추석 연휴에도 일정 규모의 관객을 불러들일 것으로 보인다.

‘모가디슈’의 경우 14일 현재 340만 관객을 동원, 이번 추석 연휴에 350만명까지 내다보고 있다. ‘인질’과 상대적으로 관객 동원세의 하락폭이 큰 ‘싱크홀’도 액션과



기적 보이스 모가디슈  
재난휴먼드라마의 장르로 다시 명절 연휴를 노린다. 다만 ‘모가디슈’는 배급사가 ‘기적’의 롯데엔터테인먼트로 갈아 신작에 좀 더 힘을 실는 전략상 상영관 확보에 따라 흥행 규모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극장가는 감염병의 거센 확산세로 고향을 찾지 않는 이들이 대신 안전한 방역환경이 구축된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윤여수 기자

## BTS, 해외로?...24일엔 콜드플레이와 컬래버

내주 유엔총회 참석 위해 백신 접종  
11월부터 미·싱가포르 공연도 예고

그들 방탄소년단이 해외 활동을 재개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한 연예관계자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11월 미국과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공연 등 본격적인 해외 활동을 다시 시작할 전망이다. 또 다른 가요관계자도 이날 “방탄소년단이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새롭게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해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물론 소속사 빅히트 뮤직의 스태프 100여명도 해외 출국에 대비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은 것으로

도 알려져 이들의 행보에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다음주 문재인 대통령 특별사절 자격으로 제76차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관련 스테프까지 대규모로 접종을 완료한 것이 방탄소년단의 해외 일정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지난해부터 해외 투어 일정을 거둬 연기해오다 최근 전면 취소해 팬들의 아쉬움을 샀다.

이를 달래기라도 하듯 방탄소년단은 록 밴드 콜드플레이와 컬래버레이션한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를 24일 내놓는



그들 방탄소년단이 14일 청와대에서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장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뷁·제이홉·진·문재인 대통령·RM·슈가·지민·정국. 뉴스

다. 영어와 한국어 가사가 함께 담긴 곡으로, 두 그룹 멤버들이 직접 작사·작곡했고, 팝음악계 히트 프로듀서로 꼽히는 맥스 마틴이 프로듀싱했다. 콜드플레이가 10월15일 발표하는 정규 9집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Music Of The Spheres)에도 수록된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14일 청와대에서 ‘미

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장을 받았다. 이들은 이번 유엔총회 기간인 20일 ‘SDG(지속가능발전목표) 모멘트’ 특별행사에서 연설하고 영상 퍼포먼스도 선보인다.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전 지구적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전한다.

이정민 기자 annoy@donga.com

##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소천 지난해 7월 뇌출혈 증세...장례는 5일장



조용기 원로목사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소천했다. 향년 85세.

여의도순복음교회는 14일 오전 7시 13분 조 목사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소천했다고 밝혔다. 조 목사는 지난해 7월 뇌출혈 증세를 보여 수술을 받은 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유족으로는 앞서 2월에 세상을 떠난 고 김성태 전 한세대 총장과 사이에 장남 희준, 차남 민제(국민일보 회장), 3남 승제 씨(한세대 이사)가 있다.

한국교회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표회장회의 결의로 고인의 장례를 한국교회장으로 엄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례는 5일장으로 치르며 빈소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베다니홀에 마련될 예정이다.

장례예식은 18일 오전 8시 한국교회장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열리며 장례위원장은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가 맡는다. 하관예배는 같은 날 오전 10시 장지인 경기도 파주시 오산리최자실국제급식기도원 묘원에서 열린다.

1936년 경남 울주군(현 울산광역시)에서 태어난 조목사는 1958년 순복음신학교를 졸업한 뒤 훗날 장모가 되는 최자실 전도사(당시)와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서 천막교회를 세워 목회를 시작했다. 이후 교세가 급성장하면서 여의도순복음교회는 1993년 교인 수 70만 명을 넘어선 기네스북에 세계 최대 교회로 등재되기도 했다.

조목사는 1966년부터 1978년까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총회장을 지냈고, 2008년 5월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로 추대됐다. 이후 영산조용기자선재단의 이사장을 맡아 구제사업을 펼쳐왔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 연예뉴스 HOT 3

### ‘프로포폴 불법투약’ 하정우 벌금 3000만원 선고



하정우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김성훈·43)가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749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는 등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 피원하모니, 내달 27일 MLS서 축하 무대

아이돌그룹 피원하모니가 미국 프로축구(MLS) 경기에서 축하무대를 펼친다. 14일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피원하모니가 다음 달 27일(한국시간) 미국 LA 벵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프로축구 로스앤젤레스FC와 시애틀사운더스FC 경기에 앞서 무대에 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 시작 직전 애국가를 부르고, 하프타임에 사전 녹화한 영상을 선보인다. 경기 전에는 별도로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1시간가량 공연한다. 이번 무대는 LA한국문화원이 로스앤젤레스FC와 손잡고 마련한 한국문화제의 일환이다.

### 리사 솔로 무비, 역대 하루 공개 조회수 1위



리사

블랙핑크 리사의 ‘라리사’(LALISA)가 전 세계 솔로가수 뮤직비디오 가운데 유튜브 첫 공개 24시간 동안 가장 많은 조회수를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유튜브 공식 발표에 따르면 ‘라리사’ 뮤직비디오는 10일 공개 이후 24시간 동안 736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2019년 4월 발표한 ‘ME!’ 뮤직비디오(6500만뷰)를 뛰어넘는 수치다. 리사는 14일 현재 ‘라리사’ 뮤직비디오로 유튜브에서 4일째 ‘가장 많이 본 동영상’ 1위를 지키며 스페셜 무대 영상으로도 2위에 올랐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